

다가올 이민 사회와 이주배경청소년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1. 우리 곁에 온 중도입국청소년, 이들을 이끈 법·제도의 변화

2023년 7월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인구 절벽 위기의 해법으로 이민정책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7-4 비자는 E-9(미숙련 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중 기업체 연속 근로 연한, 한국어 실력, 불법체류 기간 유무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를 웃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여 된다. 이전까지 2,000명 수준으로 제한하던 E-7-4 비자를 35,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E-9 비자와 달리 E-7-4 비자는 실제로 체류 기간의 제한이 없고(기본 3년에 3년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10년(4년 10개월씩 2회) 정도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힌 노동자(E-9)들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고용허가제의 많은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숙련노동력 수급 문제와 가족결합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조치였다.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¹⁾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고려와 사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E-7-4 비자에는 35,000명이라는 수적 제한을 두었지만, 결합 가족 구성원의 수는 제한이 없어 동반 자녀의 수는 35,0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내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를 이끌었던 이 같은 정책은 동포 정책에도 있었다. 1999년 동포법 제정 이후, 2007년 동포방문 취업제(H-2 비자)의 도입과 이들이 자녀와 동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치(2015년)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였으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H-1-11 비자(1년 유효 복수비자)가 발급되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동포 자녀가 국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동반 거주 비자를 받고 대거 입국하였다.

이후 동포 가정 자녀의 한국 사회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19년에 있었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3세대까지로 한정되었던 동포 범위의 제한을 없앴다. 이로써 만 18세가 되면 국적으로 돌아야 했던 동포 4세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국내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2022년에 있었던 6세~18세 사이의 재학 중인 동포 자녀에게 주어지던 동반거주비자(F-1) 대신 동포 비자(F-4)를 준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신청으로 발생하던 학습 공백을 없애고, 취업이 제한된 F-1 비자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이 어려웠던 점과 취업 문제를 해소하였다.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1990년대 결혼이주정책으로 시작된 이민정책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들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에 220여 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는 20여 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두 '가족센터'로 통합됨)가 설립되어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었다.

우리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부를 때, 예상치 못했던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늘어났다. 국제결혼의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본국에 있던 전혼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가 되면서 입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

1)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청소년으로서, 여기서 '이주'란 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포함한다.

상태에서 입국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연령에 입국한 경우는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왜냐하면 당시 안산의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한국어교육이나 다국어 안내지원이 없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안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과 외국인 가정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증가하자, 안산시는 '삼성전자'와 '안산 We Start 운동본부'와 삼자 협약을 통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만들고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 정서 지원, 한국문화 이해 활동, 다문화 대안교육 및 공교육 학습지원, 진로상담 및 진학 취업 지원, 부모 상담 및 사례 관리, 긴급 지원(주거·의료·교육·생계비) 및 후원금 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이 급증하자 교육부는 2023년 10월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24년 4월 시행)하여 제28조 2(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를 신설하였다.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17년이 흘러 다문화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을 보면 교육부 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대상(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 가정의 이주배경학생(동포 가정 포함)까지 확대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변화를 정착 지원은 여전히 쫓아가지 못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외국 부모를 둔 외국 출생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서도 제외되기 일쑤다. 장애가 있거나 심리 정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의 경우도 모두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급증하는 동포 가정 자녀와 외국인노동자 자녀 모두 이러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 노동자를 불렀더니 아이가 왔다.

국가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그들의 아이가 왔다. 아이들은 한국에 돈 벌러 간 부모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떨어져 있다 갑자기 초청(숙련제 노동자 자녀의 경우) 받아 이곳에 왔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 한국은 "자유가 있고, 깨끗한 곳"이지만 그들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친구도 없다. 동포 가정의 자녀도 마찬가지이다. 본국에서의 소수민족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국의 일자리를 찾아 부모가 한국행을 결정하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나라에 따라왔다. 필자가 있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이주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학교 다녀왔더니 엄마가 제 짐을 다 싸놓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죠. 친구들에게 인사도 못 했는데, 그리고 한국말도 못 하는데."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주 과정에서 주 양육자와 떨어져 있었던 기간, 이주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한국에서 재결합한 가족의 지지 정도이다. 2016~18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한국입국 전 부모와 3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원 현장에서는 부모와 10년을 떨어져 지낸 청소년도 만나게 된다.

여섯 살에 헤어져 16세에 한국에서 재회한 모자(母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애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도 못 하는 데 왜 나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모는 유아기 귀엽던 자녀를 기억하고, 자녀는 외국에서 용돈을 풍족하게 보내주며 너그러웠던 엄마를 기대한다. 이주로 인한 언어장벽과 문화 적응, 본국과의 교육격차에 따른 학업 등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형성, 친구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고민 등에 덧붙여져 이 아이들을 짓누른다.

4. 무엇을 ‘어디에서’ 하며 살 것인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진로이다. 한국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중고등학교 연령에 입국하는 이주청소년들은 2~3년 이내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직업 세계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있다 보니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고려인 동포 자녀는 생물을 좋아한다며 의과대학 진학을 꿈꿨다. 하지만 의사소통 정도 겨우 가능한 한국어로는 의과대학 진학은 고사하고 학교 공부조차 따라갈 수 없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의 교육제도가 좋다면 한 학기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한국어는 너무 어려우니 영어를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벽산 시기에 ‘어디에서’의 질문이 머리를 짝 채우는 경우이다. 많은 아이들이 경계 위에서 갈팡질팡하지만, 외국인의 이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청소년도 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등 든든한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저, 공장 갈 거잖아요.” 진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이주청소년이 있었다. 엄마를 밉고 한국에 왔지만, 엄마가 재혼한 새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엄마는 새로운 가정에서 얻은 동생을 돌보느라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다. 고3이라 졸업은 다가오는데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한국어도 꽤 잘하고 예체능 과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신은 미래에 ‘공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자해를 시작했고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의사’와 ‘공장’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상담과 대학 진학 지원, 취업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간과 자원에서 결핍의 덫(scarcity trap)에 빠지기 쉬운 이주청소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가정 내에서도 1.5세대의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과 직업탐색 경험을 가지는 첫 세대일 것이기 때문에 진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5. 한국의 빌척재단을 꿈꾸며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공약이 될 정도로 이주민, 난민 이슈는 뜨겁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 이민정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동시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민청 설치 등 이민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성장에 관한 고민도 그 정책안에 담기길 기대하며, 앞선 이민 국가들의 고민과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성장 변화하며 다분히 입체적인 자아를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전적 소설의 형태이든, 르포의 형식이든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층위의 자아와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이주청소년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이민 1.5세대 이주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나라 이민정책 성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들은 한국 밖에서 외국인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후 국경을 넘어 이곳에 와 한국의 보편교육을 받으며 정착한 세대이다. 이들 안에서 다양한 시선이 성장할 것이고, 한국의 이주청소년들이 미국의 이민자가 세운 빌척재단(Vilcek Foundation) 같은 기구를 이곳에 세울 날이 올 것이다.

“이민은 미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예술과 과학 분야는 그 발전을 위해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다.

다양성으로부터 대화와 창의적 사고가 시작되고 그것은 혁신을 촉진한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가능하다.”

(빌척재단의 미션)

필자 소개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이승미(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전공으로 박사학위(2000년)를 취득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서 교육연수 팀장과 연구개발 팀장으로 일했다. 사람들의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호오(好惡),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어떤 역동으로 우리의 사회적 선택을 만들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원년(2002)에 인권 교육 담당관으로 일했으며,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인도네시아 종교분쟁 지역연구와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다가올 이민 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